

*** 아파트 단위세대 공간계획 시 청소년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 2007년 아파트 현상설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Youth friendly elements in the Residential Apartments Complex Design

- Focused on the Design Competition of Apartment Complex in 2007 -

김남호* / Kim, Nam-Hyo

신미옥** / Shen, Mei-Yu

Abstract

It is the youth period that the personality is shaping gradually. The residential environments have influence on the young ego. Especially residential design should include more youth friendly design elements than any other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youth friendly design elements about the space design of apartment through analysis of youth's needs. This study was progressed to the survey method about five districts of apartment design competitions in 2007. The collected cases are analyzed by using statistics software SPSS for windows release 11.0.

The result of the study was as below. First, the youth satisfaction of current residential space got more satisfied as floor space got larger. Second, most of youth uses them own room that is satisfied with their floor space for sleeping, inviting friends, studying, playing activities. Third, generally youth preferred to place their own room not far from the restroom, but the result of distance between master room and entrance was classified depend on sex, personal inclination, and residence environment, also generally satisfied with volume of their room. Fourth, for the restroom, although it is too small that satisfied with bath facilities relatively. And cast, youth's preferred room for extra was 'movie/music room', 'game room' and 'dress room' which is higher preference than 'study room'.

키워드 : 아파트, 현상설계, 공간계획, 청소년, 배려요소

Keywords : Residential apartment, Design competition, Space plan, Youth, Friendly element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사람들의 주거에 대한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에 발맞추어 각 건설 회사들은 주거공간을 다양하게 계획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다. 주거환경은 인간행위의 요구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인간행위를 유도하거나 함유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는 주거환경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주거의 설계는 수많은 행위들을 충족시켜야 하고 설계자는 이용자의

행위들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어린이나 노인, 주부, 부부를 위한 주거공간 계획은 다양하게 연구, 실행되어 왔으나 청소년들을 위한 계획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그들의 '제1의 공간'인 주거공간은 큰 영향을 준다. 청소년 시기는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발달과정의 성취와 올바른 자아개념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생의 중요한 시기이며 주거환경은 청소년의 인성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주거공간은 청소년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주생활양식과 선호를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물리적 주거공간이 청소년에게도 합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청소년의 주생활 행위를 분석하고 주거환경에 대한 선호를 분석하여 청소년에게 합리적인 주거공간의 요소를 도출하여 주거공간을 계획 할 때에 청소년을 고려할 수

* 이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실내디자인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숭실대학교 대학원 실내디자인학과 석사과정

***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김순경¹⁾은 가족을 각각의 관리능력을 가진 개인들의 체계로 이해한다면 개인단위의 공간욕구는 곧 주거공간요구의 이해에 접점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모임과 교류 장소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거실은 가족모임의 만족도를 높여야 하고, 가사작업공간인 주방은 주부가 만족해야 하며, 부모님 침실용 안방은 부모님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면, 자녀의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침실'은 자녀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특히 부모 방에 별도로 욕실이 있을 경우 공용욕실은 자녀가 주로 사용함으로 공용욕실 역시 자녀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침실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방이 있다면 그 방 또한 자녀가 원하는 용도로 사용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주거공간에서 '자녀방'과 '공용욕실'은 부모님보다 자녀가 선호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다용도룸'은 자녀의 요구를 고려할 수 있는 공간이며, '거실'공간은 가족모임과 교류의 장으로 모든 가족구성원이 만족해야 하는 공간이기에 여기에는 '자녀'도 포함된다. 김미희²⁾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만을 의식하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를 주거공간 내 청소년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개인공간(이하 '내방')과 공용욕실, 다목적실과 거실공간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에 관해서는 그들의 주생활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생활양식과 주거만족도, 주거선호도를 연구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절차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하여 주거공간이 청소년의 성장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청소년의 주생활양식과 주거만족도, 주거선호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주거공간은 최근 실제로 사용되는 공간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7년 후반 저명한 설계회사들이 참여한 아파트 단지 현상설계 5개 안에서 계획된 단위주거 평면도를 수집, 유형화하여, 청소년이 선호하는 평면유형과 각 유형별 청소년의 선호도와 변인요소를 파악하였다.

셋째, 설문조사를 통하여 청소년의 주생활양식과 주거만족도, 주거공간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의 위치, 크기 등 요소에 대하여 조사하며, '사례분석'에서 분석된 평면도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주거공간 선호를 파악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1)김순경 외, 청소년의 주거의식과 가정환경 변인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논문보고집 제8집, 1986, p.94
2)김미희 외, 도시 청소년의 주거가치, 생활과학연구 제12집, 2002, p.12

2.1. 청소년 주거환경의 중요성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법규마다 다르나, 청소년기본법³⁾에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사이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흔히 '청소년'이라 하면 만 13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사람을 칭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학생'이라는 말로 대신하기도 한다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인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 단계로서 아동이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기이며 과도기이다. 청소년기에는 자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나 다른 성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려는 심리적 이유가 일어나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

김진영⁵⁾의 연구에서는 방을 혼자 쓰는 학생들은 자기 위주로 남을 설득하거나 집단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자신감이 있다고 하였다.

정영숙⁶⁾의 연구에서는 주거환경이 청소년의 욕구와 적절히 일치할 수 있을 때 보다 청소년의 사회화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은미⁷⁾는 청소년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환경이 지적되고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주거욕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환경은 청소년의 인성과 사회화에 영향을 준다. 주거환경은 청소년의 필요를 만족시켜야 하며,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환경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2.2. 청소년 주생활양식

자녀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들어서면서, 개인의 주장이 강해지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그들의 주생활양식도 변화를 가져온다. 청소년의 주생활양식을 알아보는 것은 주거공간을 계획할 때 청소년의 유익을 더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길호⁸⁾는 청소년이 개인침실에서 하는 활동은 공부, 휴식, 취침 등 개인생활과 음악 감상, 라디오 청취, 독서, 악기, 컴퓨터 등 취미생활, 친구만나기, 놀기 등 교류활동이라고 한다.

윤정근⁹⁾은 '자녀방'의 주생활행위는 취침뿐만 아니라 학습과 놀이 공간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자녀의 '손님접

3)청소년기본법(개정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32호)

4)다음 위키백과,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_122792

5)김진영, 중학생의 주거환경과 인성특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원광대 석사논문, 2001, p.25

6)정영숙 외, 청소년과 생활환경, 대한가정학회, 1998, p.7

7)오은미 외, 청소년의 주거만족도, 생활과학연구논총 제3호, 2000, p.95

8)이길호, 도시 청소년의 주거 내 개인공간 구성선호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2002, pp.27-28

9)윤정근, 주생활변화에 대응한 아파트 단위평면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1999, p.86

대' 행위에도 거실 다음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박현아¹⁰⁾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에 학습, 취미활동, 친구초대 행위가 자신의 침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청소년의 주생활행위는 많은 행위가 자신의 침실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거실 공간은 가족교류, 가정활동, 친구초대 등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3. 청소년의 주거선호

주거선호는 주거시설에 대한 선호, 주거공간에 대한 선호, 개인생활에 대한 선호 등을 포함한다.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청소년 주거공간 선호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청소년의 주거선호

공간/시설	연구자	내용
개인공간 (침실)	양형모 ¹¹⁾	혼자 한 방을 쓰고 싶다. '내 방'의 위치가 안방과 가까운 건 싫다
	박세영 ¹²⁾	작더라도 혼자 한 방을 쓰고 싶다. '내 방'의 위치는 상관없거나 안방과 먼 쪽을 선호한다.
	박미영 ¹³⁾	실내장식은 내 취향대로 주문하길 원함
	유성희 ¹⁴⁾	독방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남
		가사자동화 및 첨단시설 선호한다. 아름다운 부엌과 식사공간 선호
공용공간	주방/식당	정미영 ¹⁵⁾ 가사자동화 및 첨단시설이 잘 되어있어야 함
	욕실	박미영 목욕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선호 신철성 ¹⁶⁾ 세면기는 한 공간으로 하고 번거는 독립된 형태 선호
기타 용도	박미영	음악 감상실, 서재, 게임룸 선호
	정미영	취미활동이 가능한 공간 필요
	신철성	서재, 음악감상실, 게임룸, 카페일마 순으로 선호
기타	황경희 ¹⁷⁾	가족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
	박미영	건강에 해가 없어야 한다. 내부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함 비용이 들더라도 소음은 잘 막아야 한다.
	정미영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잘 들어와야 한다. 난방, 급, 배수시설이 잘 되어있어야 한다.
		범죄나 재해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각 방의 방음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박세영	청소년이 희망하는 방수는 평수에 상관없이 4개

2.4. 청소년의 주거만족도

주거만족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표현이기도 하며 또한 생활만족이나 생활의 질

- 10) 박현아,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집합주택 거주자의 거주적응 및 주요구 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pp.41-47
- 11) 양형모, 청소년의 주거공간 사용실태와 주거의식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1999, p.50
- 12) 양형모, 앞 논문, p.50
- 13) 박미영, 청소년의 주거가치와 주거선호에 대한 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2006, pp.47-48
- 14) 유성희 외, 개인공간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청소년의 주거의식,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983.4, p.74
- 15) 정미영, 도시 청소년의 주거가치와 주거만족도, 전남대 석사논문, 2000, p.32
- 16) 신철성, 청소년의 미래주거선호에 영향을 주는 변인연구, 경남대 석사 논문, 2002, p.39, p.45
- 17) 황경희 외, 청소년의 주거가치 및 주거선호 경향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논문집 제2권 1호, 2000, p.95

과 같은 더 큰 개념형성에 유용한 예측변인이다¹⁸⁾.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주거만족은 주거환경, 주거시설, 내부 공간 등 요소를 포함한다. 주거에 대한 불만족 사항은 추후 주거공간 계획 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청소년의 주거만족도와 불만족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청소년의 주거공간 만족도 및 필요사항

공간/시설	연구자	만족도 및 필요사항
개인공간 (침실)	오은미 ¹⁹⁾	공부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개인방에 만족 (3.79/5)
	백영순 ²⁰⁾	자녀방 면적확대 필요 자녀방 프라이버시 확보 필요 자녀성장에 상응한 가구 필요
	윤정근 ²¹⁾	자녀방 생활기 기 도입으로 인한 절대면적 부족
	이길호 ²²⁾	형제나 지매와 함께 사용 시, 침실공간이 좁다고 느끼거나 시끄러워 불만족
공용공간	욕실	양형모 ²³⁾ 욕실이 좁다고 느끼지 않음(69.4%) 세탁, 몸치장, 휴식, 머리 말리기 편리한 시설 필요
	주방/식당	백영순 주방/식당간의 면적확대 필요
기타 공간	오은미	취미와 여가를 위한 공간 필요
	백영순	가족단위공간 필요 취미와 여가를 위한 공간 필요
시설	오은미	난방상태, 채광, 통풍시설에 만족 각 방의 방음상태 개선 필요

2.5. 소결

본 장에서는 청소년과 주거환경의 관계, 청소년의 주생활양식과 주거선호, 주거만족도와 요구사항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청소년의 주거공간에 대한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주생활양식과 주거선호, 주거만족도가 각각 연구되거나, 주거선호와 주거가치, 주거만족도가 주거가치, 주생활양식과 주거만족도가 함께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부동한 범위에서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통합,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연구 할 주생활양식, 주거선호와 주거만족도의 기초자료로 응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위세대 공간계획에서 반영이 가능한 공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의 '주생활양식'은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내용을 기초로 당연하게 인정되고 있는 기본생활공간²⁴⁾을 제외한 공부, 친구초대, 여가활동, 가족대화, 혼자 식사할 때 이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주거만족도'는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내용 중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기초로 공간의 크기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주거선호'는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내용을 기초로 공간

- 18) 김정희, 청소년의 생활양식, 주거만족도, 주거가치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2001, p.10
- 19) 오은미, 청소년의 주거만족도, 생활과학연구논총 제3호, 2000, p.99
- 20) 백영순, 가족생활 주기에 변화에 따른 가변형 주택 계획, 홍익대 석사 논문, 2006, p.27
- 21) 윤정근, 앞 논문, p.95
- 22) 이길호, 앞 논문, p.30
- 23) 양형모, 앞 논문, p.52
- 24) 기본생활공간은 취침은 '내 방'에서, 가족식사는 식탁에서, 목욕/용변은 욕실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간주한다.

의 위치와 크기 및 크기에 영향을 주는 시설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선행연구의 내용종합 및 본 연구의 연구내용

	주생활양식	주거만족도	주거선호
선행 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 · 휴식 · 취침 · 친구초대 · 취미생활 · 가족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의 크기 · 내부시설 · 프라이버시 · 난방, 채광, 통풍 · 방음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의 위치 · 내부설비 및 방음시설 · 인테리어 및 건축자재 · 친환경요소 · '다용도룸'의 용도
본 연구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장소 · 친구초대장소 · 여가활동장소 · 가족대화장소 · 혼자식사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주거공간에 대한 만족도 · 개인공간, 욕실 공간의 크기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 평면구조에 대한 선호 · 개인공간, 욕실공간, 거실공간에 대한 선호 · '다용도룸'의 용도 선호 · '가족단란공간'에 대한 선호

3. 아파트 단위세대 공간분석

3.1. 단지개요

본 연구를 위한 사례로서 아파트 단위세대 계획은 2007년 후반기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한 현상설계²⁵⁾ 중에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5개 아파트단지는 600세대 이상의 세대수를 용납하는 규모가 비교적 큰 단지며 각각 대전지역 G지구, N지구, S지구, C지구, O지구이다. 그 개요는 <표 4>와 같다.

<표 4> 주택현상 단지개요

	지구	대지면적	용적률	세대수	평면유형(가지)
a	G지구	63,528,000㎡	155.25%	658	8
b	N지구	62,316,000㎡	163.52%	840	13
c	S지구	146,364,000㎡	199.03%	1,971	8
d	C지구	46,742,000㎡	169.497%	692	3
e	O지구	57,840,000㎡	160.3%	1050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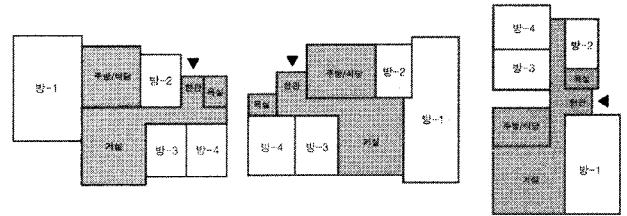
3.2. 단위세대 평면유형화

본 연구는 주택계획에서 청소년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주택평면구조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5개 현상설계안에서 수집된 평면유형 중 복층 형을 제외한 37개 평면유형을 도출하였고, 다시 3가지 큰 타입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평면유형은 전체적으로 방 3개(이하 3R)로 구성된 주택과, 방 4개(이하 4R)로 구성된 주택이었고, 욕실은 안방욕실과 공용욕실 두개로 구성되었다. 주택분류는 A형, B형, C형으로 명명하였다. 'A형'은 안방이 가장 안쪽에, 자녀 방이 현관 쪽에 위치하여 있으며, 거실과 주방/식당 사이에 안방의 진입으로 인한 통로가 생기는 형이고 'B형'은 자녀방 1개가 안방에 인접되어 있으며 거실과 주방/식당사이에 통로가 생기는 형이며 'C형'은 안방과 자녀 방이

분리되고, 거실이 가장 안쪽에 위치하며 주방/식당과 통합되는 형이다. (<표 5>참조) 이를 제4장에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청소년이 선호하는 평면과, 평면에서의 선호하는 공간에 대한 조사에 사용하였다. 조사에 사용한 평면도는 <그림 1>, <그림 2>, <그림 3>이다.

<표 5> 평면유형 분류의 기준

유형	'주방/식당'과 '거실'의 분리여부		'안방'과 '자녀방'의 분리여부	
	분리	통합	분리	1개 인접
A형	●		●	
B형	●			●
C형		●	●	



<그림 1> A형 평면도 <그림 2> B형 평면도 <그림 3> C형 평면도

4. 설문조사 및 공간분석

4.1.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우선 기존 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설문내용을 작성하여 전공자와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고 전공교수님과 함께 설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다음 본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09년 2월 17일부터 22일에 걸쳐 실시되고 회수된 180부 중에 17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자료는 SPSS WIN(VER.1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변량분석(Oneway/Anova)과 교차분석(crosstab), 빈도분석(Frequencies)을 하여 신뢰도 95%에서 검증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표 6>참조)

<표 6>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문항구성	내용	분석방법
일반사항	성별, 연령, 주택유형, 주택면적, 가족 수, 가족형태, 방사용	빈도분석
생활양식	공부, 친구접대, 여가활동, 가족대화, 혼자식사 장소	
주거 만족도	현재 주거에 대한 만족 정도	변량분석
	현재 거주하는 방의 자유로움 정도 현재 거주하는 방의 비좁음 정도	
주거 선호도	주택의 평면구조 및 개인공간의 위치 선호 '욕실'의 위치 선호 '취미생활공간'에 대한 선호	교차분석

4.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

조사대상은 13세-19세사이의 중·고등학생으로서 전체 175명이며 남학생 71명과 여학생 104명으로 여학생이 좀 더 많은

25)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한 현상설계 중 선정한 사례는 대전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보다는 주거환경이라는 보편성을 지닌 디자인이 우수한 사례로 다양하게 계획되어 최신경향을 볼 수 있는 사례이다.

비율로 구성되었다. 조사된 175명 청소년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은 118명(67.4%)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면적은 30평-39평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70명(44.3%)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수는 4인 가족이 87명(49.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가족구성은 부모+자녀의 구성이 148명(84.6%)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140명(80.5%)의 청소년이 독방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150명(89.3%)의 청소년이 형제, 자매가 있었다.

(2) 조사대상자의 주생활양식 특성

청소년은 '내 방'에서 취침 이외에 공부, 친구접대, 취미활동을 함으로, 청소년이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공간으로 분석되었다. 거실에서는 '가족교류'의 시간을 가장 많이 가지고, 그 외 '친구접대'와 '여가활동'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공부장소'는 129명(73.7%)의 학생이 주로 '내 방'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공부장소'는 거주면적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29평 이하에 거주하는 학생의 82.4%가 '내 방'에서 공부하였으며 면적이 작을수록 '공부장소'로 '내 방'에 대한 사용도가 더 높음이 나타났다. 50평 이상에 거주하는 학생은 34.5%가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접대장소'는 108명(61.7%)의 학생이 주로 '내 방'에서, 53명(30.3%)의 학생이 주로 거실에서 접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접대장소'는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친구접대장소로 '내 방'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장소'는 44명(44.0%)의 학생이 주로 '내 방'을, 76명(43.4%) 학생이 주로 거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장소'는 '친구접대장소'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내 방'에서 친구를 접대하는 학생의 53.3%가 '내 방'에서 여가시간을 보냈고, 거실에서 친구를 접대하는 학생의 62.3%가 거실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대화장소'는 120명(68.6%)의 학생이 주로 '거실'에서 가족모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대화장소'는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은 72.9%가 '거실'인 반면에 여학생은 '거실'이 63.5%, '주방/식당'이 16.3%, '안방'이 14.4%로 '가족대화장소'로 '주방/식당'과 '안방'도 활용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혼자 식사'할 때 109명(62.3%)의 학생이 주로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방을 사용하는 학생의 66.9%가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식사'할 때 장소는 공부장소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내 방'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69.8%가 식탁에서 식사하였고 '거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45.5%가 TV앞에서, 18.2%가 컴퓨터 앞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참조)

청소년의 주생활양식을 조사한 결과, 주택면적이 작을수록, 가족 수가 적을수록 '내 방'에 대한 활용도가 높았고, 독방을 사용하는 경우, 여학생의 경우 '내 방'의 활용도가 높았다. '내

<표 7> 청소년의 주생활양식 특성과 관련변인과의 교차분석 f. 175

항목	내 방	f	%	변량요소(%)
공부장소	내 방	129	73.7	29평 이하(82.4)* ; 3평 이하(87.5)/6평 이상(41.7)**
	공부방	31	17.7	50평 이상(34.5)*
	거실	11	6.3	독방(2.9)/함께 사용(18.2)**
	기타	4	2.2	
친구접대장소	내 방	108	61.7	남(53.5)/여(68.0) ; 내방에서 공부(66.4)**
	거실	53	30.3	남(33.8)/여(28.2) ; 거실에서 공부(54.5)**
	기타	14	8.0	
여가활동장소	내방	77	44.0	내방에서 친구접대(53.3)**
	공부방	10	5.7	공부방에서 친구접대(75.0)**
	거실	76	43.4	거실에서 친구접대(62.3)**
	기타	12	6.8	
가족대화장소	거실	120	68.6	남(72.9)/여(64.4)
	주방/식당	25	14.3	여(16.3)
	안방	22	12.6	여(14.4)
	기타	8	4.6	
혼자식사장소	식탁	109	62.3	독방(66.9)** ; 내방에서 공부 (69.8)**
	TV앞	33	18.9	거실에서 공부(45.5)**
	컴퓨터앞	23	13.1	거실에서 공부(18.2)**
	기타	10	5.7	

* p<.05 ** p<.01 *** p<.001

방'의 활용도가 높은 학생은 '공부', '취미생활', '친구접대'장소로 모두 '내 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혼자식사장소'로 '식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주택면적이 클수록, 가족 수가 많을수록 거실에 대한 활용도가 높았고, '친구접대'와 '취미생활'장소로 '거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공부장소'로 '내 방' 외에 '공부방'이나 '거실'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고, '혼자 식사'할 때 '식탁'외에 'TV앞'이나 '컴퓨터 앞'에서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로서 청소년을 주생활양식에 따라 '내 방'활용형'과 '거실'활용형'으로 나눌 수 있다. '내 방'활용형'은 친구접대와 여가활동을 주로 '내 방'에서 하는 편이고, '거실'활용형'은 친구접대와 여가활동을 주로 '거실'에서 하는 편이다.

4.3. 조사대상자의 주거의식

청소년은 대부분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하는 편이며, '내 방'에 대하여 외부의 침해를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다고 여기는 편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주거면적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50평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29평 이하에 거주하는 학생이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나, 면적이 클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주거만족도는 '내 방'에서 자유롭다고 느낄수록 만족도가 더 높음이 조사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해 줌으로 청소년의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설명한다.

'내 방'의 위치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욕실'과 가까운 방을 비교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관가까이'를 선호하는 학생은 동시에 '욕실가까이'도 선호했다. 현관가까이를 선호하는 청소년들은 '내 방'에 발코니가 있는 것을 비교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는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내 방'에 샤워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편이었다. '내 방'내부 샤워시설에 대한 요구는 5점 리커드 척도로 조사한 항목 중에 3.58로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안방가까이'를 원하는 학생은 '내 방'에 '발코니'공간과 '샤워시설'이 있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내 방'의 문은 잘 열지 않는 경우가 33.1%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것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자주 열어놓으며, 방을 함께 사용하는 학생이 독방을 사용하는 학생보다 더 자주 열어놓는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공간이 더 비좁다고 여기며, 두 명이 침실을 함께 사용할 때 혼자 사용할 때보다 더 비좁다는 원인과 비례하여, 방 문 열어놓는 행위는 공간이 비좁은 것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로서 안방과 인접한 방은 발코니 공간을 두지 않거나 발코니 공간까지 확장하여 침실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현관과 인접한 방은 발코니공간을 두며 동시에 욕실공간과도 인접하여 배수시설을 공용함으로 '내 방'에 작은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욕실'의 위치에 대해서는 '거실'과의 인접도와 '내 방'과의 인접도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거실'과의 인접도에 대해서는 뚜렷한 선호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욕실'공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면적으로 계획되지만 전체적으로 비좁다고 느끼지는 않았으며, '욕실'에 욕조시설을 두는 것에 대하여 비교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트렌드로 욕실공간의 확장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거실'은 현대사회에서 한국 전통의 '안방'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안방'은 바닥에 앉는 문화인 좌식문화이고, '거실'은 대부분 소파를 둠으로서 입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청소년들은 전통적인 좌식생활보다 소파에 앉는 것을 비교적 선호하여, 거실 소파를 치우고 활동공간을 넓히는데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거실'이외의 '가족단란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뚜렷한 선호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설문조사에서 한 개 주택에 방이 네 개일 경우, 69.7%가 적어도 한 개 방은 침실 이외의 용도로 사용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가족 수가 4명이하가 72.6%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방4개의 주택을 구성할 때에 한 개 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확률이 높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남은 방의 용도에 대해서 청소년은 공부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서재나 공부방으로 사용하겠다고 대답한 학생이 17.2%로 낮은 분포를 보였고, 오히려 영화/음악감상실, 게임/놀이방, 드레스룸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74.1%가 공부하는 장소로 자신의 방을 택한 것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은 자신의 방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며, 별도로 '공부방'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9>참조)

<표 8> 청소년의 공간별 주거의식과 관련변인과의 교차분석

분류	항목	Mean	Std. Dev.	변량요소(Mean)		
전체 만족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만족한다.	3.15	.941	29평 이하(2.94)/50평 이상(3.72)**		
'내 방'	프라이버시	'내 방'에서는 다른 사람의 방해나 간섭 없이 자유로이 지낸다.	3.65	1.014	독방(3.80)/같이(3.06)**	
		'내 방'의 문은 열어놓는 편이다.	2.98	1.281	남(3.39)/여(2.73)**	
	크기	'내 방'은 취미생활 하기에 비좁다	2.93	1.142	29평 이하(3.47)*	
		'내 방'은 내 물건을 전부 수납하기에 비좁다	2.87	1.185	남(3.17)/여(2.73)*	
	시설	비좁더라도 침대는 큰 것이 좋다	2.96	1.182	현관가까이(3.71)**	
		'내 방'에 발코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3.43	1.191	현관가까이(4.36)**	
		'내 방'안에 샤워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3.58	1.207	남(3.13)/여(3.86)**	
	위치	'내 방'이 안방과 가까운 것이 좋다.	2.43	1.125	발코니(2.27) 방 내 샤워시설(2.20)	
		'내 방'이 욕실과 가까운 것이 좋다.	3.31	1.113	현관가까이(3.79)**	
		'내 방'이 현관과 가까운 것이 좋다.	2.87	1.131	방 내 샤워시설(3.73)**	
	욕실	크기	욕실이 좁다고 느낀다.	2.82	1.080	남(2.61)/여(2.95)*
			욕실 공간을 크게 해서 휴식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87	1.107	가족단란공간(3.67)**
시설		욕실이 비좁더라도 욕조는 있어야 한다.	3.50	1.132	13-14세(3.74)*	
		샤워기만 설치해 활동공간을 넓히는 것이 좋다	2.75	.972	13-14세(2.35)/15-16세(2.75)/17-19세(3.16)**	
위치	욕실 위치는 거실에서 멀면 멀수록 좋다	2.78	.944			
	욕실 위치는 거실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2.97	.981	남(3.19)/여(2.83)*		
거실	시설	나는 소파보다 바닥에 앉는 것이 편하다.	2.44	1.032	소파 제거(3.00)**	
		거실 소파를 없애고 활동공간을 넓히는 것이 좋다	2.40	.937	방 내 샤워시설(2.20)**	
	거실2	거실 이외에 가족단란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03	1.033	독방(2.93)/같이(3.47)**	
				13-14세(2.94)/15-16세(2.78)/17-19세(3.37)**		

* p<.05 ** p<.01 *** p<.001

<표 9> '다용도룸'의 용도

'다용도룸'의 용도	f	%	변량(%)
서재/공부방	30	17.1	방을 함께 사용(29.4)**; 남향 방 선호(25.9)*; 독신(33.3)*
영화/음악감상실	48	27.4	방을 함께 사용(32.4)**; 남향 방 선호(37.0)*; 독신(44.4)*
게임/놀이방	34	19.4	
드레스룸	55	31.4	독방(33.8)**; 내방 위치 중요(37.4)*

* p<.05 ** p<.01 *** p<.001

4.4. 조사대상자의 주거공간 선호

2장에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진행한 5개 주택현상의 평면유형에 대하여 분석, 분류한 A형, B형, C형을 조사대상자가 직접 선택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선호를 알아보았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참조). 또한 청소년이 '내 방'을 선택할 때에 고려하는 사항과 '내 방' 위치에 대한 선호, 침실 이외에 방이 한 개 더 남았을 경우 활용하고 싶은 방의 용도에 대하여서도 함께 알아보았다.

주택유형에 대하여 69명(40.1%)의 학생이 'B형'을 선호하고

51(29.7%)명의 학생이 'A형'을, 52명(30.2%)의 학생이 'C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에 대한 선호는 '내 방'을 선택할 때 우선하여 고려하는 사항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면적을 우선 고려하는 학생의 60.5%가 'B형'을 선호하고 위치를 우선 고려하는 학생의 36.0%가 'C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방'을 선택할 때 '위치가 좋는가'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 학생이 100명(58.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면적을 우선하여 고려하는 학생이 44명(25.7%), '햇빛이 잘 들어오는가'를 우선하여 고려하는 학생이 27명(15.8%)이었다. '햇빛'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하는 면적이 클수록 더 높은 선호도를 보여 50평 이상에 거주하는 학생의 42.9%가 '햇빛'을 우선 고려하였다.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하는 면적이 작을수록 더 높은 선호도를 보여 29평 이하에 거주하는 학생의 74.3%가 위치를 우선 고려하였다. 이로 보았을 때 청소년은 자신의 방의 위치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생활조건이 좋아짐에 따라 채광에 대한 요구도 높아 감을 알 수 있다. (<표 10>참조)

<표 10> 청소년의 '방'에 대한 선호와 관련변인과의 교차분석

항목	f	%	변량(%)	
주택 유형 선호	A형	51	29.1	
	B형	70	40.0	면적 우선고려(60.5)"
	C형	52	29.7	위치 우선고려(36.0)"
'내방' 선택 우선 고려	햇빛	27	15.8	50평 이상(42.9)"
	면적	44	25.7	
	위치	100	58.5	29평 이하(74.3)"

* p<.05 ** p<.01 *** p<.001

3가지 유형의 평면도에서 '방-1'은 90%이상의 청소년이 가족구성원에 따라 '부모님방'으로나 '조부모님방'으로 선호하였다. '내 방'과 '기타용도'의 방에 대해서 '방-2', '방-3', '방-4'중에서 각각 부동한 선호를 보였다.

'A형'을 선호한 50명의 학생 중에서 '내 방'에 대한 선호는 '방-2'가 17명(33.3%), '방-3'이 16명(32.0%), '방-4'가 13명(26.0)%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기타용도'의 방에 대해서도 '방-2', '방-3', '방-4'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B형'을 선호한 70명의 학생 중에서 '내 방'에 대한 선호는 '방-4'가 35명(50.7%)으로 가장 높았다. 3가지 유형의 공간에서 유일하게 안방(방-1)과 인접된 '방-2'는 '내 방'으로의 선호보다 '기타용도'로의 선호가 높아 조사대상자가 'B형'을 선호한 원인이 안방(방-1)과 인접된 방을 자신의 방으로 원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C형'을 선호한 52명의 학생 중에서 '내 방'에 대한 선호는 '방-4'가 28명(54.9%)으로 가장 높았다. '기타용도'의 방에 대해서는 23명(44.2%)의 학생이 '방-2'를 선호하여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다.

주거공간 내 각 방에 대한 선호를 조사한 결과, '내 방'에 대한 선호도는 안방, 거실과 가장 멀리 떨어진 '방-4'에 대한 선

호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청소년이 '내 방'을 선택할 때 '위치'를 중요시 하는 원인과 함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위치로 주거공간에서 가장 떨어져 있는 위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타용도'의 방으로는 '방-2'에 대한 선호가 비교적 높았는데 '방-3'과 '방-4'는 서로 인접되어 있고 '방-2'는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떨어져 있는 방을 '기타용도'의 방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11>참조)

'내 방'과 '기타용도'의 방의 선호 위치를 분석함으로 주거공간을 계획 할 때 침실공간으로 사용할 방과 다목적공간으로 사용할 방에 대하여 미리 특성에 맞게 계획 할 수 있다.

<표 11> 청소년의 '내 방'과 '기타용도'의 방에 대한 선호 f(%)

항목	방-2	방-3	방-4	
A형 (f.50)	내 방	17(33.3)	16(32.0)	13(26.0)
	기타용도	14(27.5)	11(22.0)	14(28.0)
B형 (f.70)	내 방	15(21.7)	15(21.4)	35(50.7)
	기타용도	23(31.9)	16(22.9)	13(18.8)
C형 (f.52)	내 방	10(19.2)	12(23.1)	28(54.9)
	기타용도	23(44.2)	2(3.8)	10(19.6)

* p<.05 ** p<.01 *** p<.001

4.5. 유형별 공간분석

2장 사례분석에서 5개 아파트 단지의 37개 단위세대를 'A형', 'B형', 'C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장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사례 7개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표 12>참조)

(1) A형

'A형'은 3가지 유형 중 유일하게 주방/식당공간과 안방이 인접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로써 주방과 안방 사이에 주부를 위한 공간을 계획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A-c안 부부중심형'에서 이러한 공간을 계획하였다. 또 부모영역과 자녀영역이 거실과 주방/식당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리하다.

'A-d안 34B Type'은 침실 3개와 거실이 모두 남향으로 계획하여 채광을 중요하게 여기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될 수 있다. 청소년의 개인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두 개의 방 중에서 욕실과 인접하여 위치한 방은 청소년이 높은 선호도를 보이겠지만 문이 안방문과 마주하고 있어 방문을 자주 열어놓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방은 또 욕실과 인접해 있기에 청소년의 선호에 따라 간단한 샤워시설의 도입이 가능하다. 현관 가까운 위치를 선호하는 청소년은 발코니가 있는 공간을 선호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두 방 중 한 개는 발코니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신 자녀로 개인공간을 크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침실-1'과 '침실-2'가 인접된 부분 벽체를 가변벽체로 계획하여 통합하여 사용 가능하게 하면 다양한 청소년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A형'에서 'A-c안 부부중심형'은 주방공간에 주부가 취미생

활할 수 있는 공간을 줌으로 주부의 필요를 제공한 단위세대라고 할 수 있다. 자녀실로 사용할 수 있는 방 2개는 마주하고 있어 주방에 인접한 방은 채광이 어려울 수 있으며, 방문을 자주 열어놓는 청소년들에게는 거실공간이 바로 보여 프라이버시에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이 방은 다른 주방/식당공간과 인접하고 거실 및 다른 침실과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어 '영화/음악 감상실'로 사용하기 유리하며 이를 대비하여 방음시설을 잘 계획함으로써 단점을 이점으로 승화할 수 있다.

'A형'에서 'A-b안 121㎡형'은 면적이 비교적 큰 단위세대이다. 설문조사의 결과로 방이 4개인 경우, 그중 한 개 방은 침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확률이 높다. 또 청소년들의 선호로 보았을 때 현재 거주하는 면적이 클수록 채광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채광이 좋은 두 방이 침실용으로 활용 될 확률이 높고 주방에 인접한 방이 기타 용도로 활용 될 확률이 높다. 또한 남향의 두 방이 가운데 발코니를 두고 떨어져 있어 소음을 줄일 수 있어 청소년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2) B형

'B형'은 3가지 유형 중 유일하게 안방과 인접한 방을 계획하였다. 안방과 인접한 방은 청소년의 선호로 보았을 때 '내 방'보다는 기타 용도나 동생 방으로 더 선호하였다.

'B-e안 자녀중심형'은 자녀방의 유익을 고려하여 자녀 방을 좀 더 큰 면적으로 계획하였다. 이는 자신의 방이 좁다고 여기는 청소년들이 선호할 것이다. 또 안방과 인접한 자녀 방에 발코니를 계획하였는데 현관과 가까운 방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이 발코니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발코니 설치의 현관과 가까운 방에 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는 더 합리하다. 안방과 인접한 방을 선호하는 청소년은 발코니에 대한 요구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B-a안 침실전면배치형'은 침실 3개와 거실이 모두 남향이며 안방과 인접한 방은 채광이 어렵고 작은 면적으로 계획되었다. 청소년은 안방과 인접한 방을 '내 방'보다 '기타용도'의 방으로 더 선호하여 작은 면적의 다목적실로 계획한 것에 대하여 청소년은 선호할 것이지만 안방, 거실과 가까이 있어 청소년이 선호하는 '드레스룸'과 '영화/음악감상실'로의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다 큰 면적에 거주하는 학생은 '서재'에 대한 선호도 상대적으로 높아 이 방이 '서재'로 계획되는 것이 합리하다.

(3) C형

'C형'은 3가지 유형 중 유일하게 거실공간과 주방/식당공간이 통합된 형이다. 이는 '거실활용형'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일 것이다.

'C-b안 84㎡형'은 안방 문이 주방과 마주하고 있어 주부에게는 편리할 수 있지만 자녀영역과 부모영역사이에 완충지역이 없어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청소년들은 안방과 가장 떨어져 있는 방을 가장 선호하였다. 안

방과 가까운 방을 청소년용 자녀 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의 위치를 현관가까이 하거나 안방문의 위치를 거실 가까이 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요인을 추가하는 것이 그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다.

'C-a안 단지경관구성형'은 부모, 자녀영역의 명확한 분리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자녀영역에 있는 3개의 방중에 욕실과 인접한 방을 다목적실로 계획하였는데 이는 설문조사에서 다목적실로 사용할 확률이 가장 높은 방으로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2> 평면에 대한 유형 분류

유형	기본형	확장형	
A형	3 R 		
	4 R 		
B형	3 R 		
	4 R 		
C형	3 R 		
	4 R 		

5. 결론

본 연구는 물리적 주택공간이 청소년에게도 합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청소년의 주생활 행위와 주거만족도, 주거공간 선호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대부분이 형제자매가 있으며 독방을 사용하고 있다. 또 주거공간에 방이 4개인 경우 대부분이 그 중 1개는

다목적실로 사용 가능하다고 조사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주생활양식은 '내방활용형'과 '거실활용형'으로 분류하였는데 '내방활용형'은 개인공간의 면적을 크게 계획하여야 하며, '거실활용형'은 거실에 대한 활용이 높기 때문에 거실과 주방/식당공간이 통합된 C형 구조가 적합하다.

셋째, 청소년의 현재 거주하는 주거공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비교적 만족하는 편이며, 만족도는 주택의 면적이 크에 따라, 독방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함께 사용하는 것에 비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라이버시는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개인공간에서 느끼는 자유로움 정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내 방'의 위치에 대하여서는 보편적으로 '욕실'과 가까운 위치를 선호하였다. 안방 및 현관과의 거리는 성별, 개인성향, 현재 거주환경 등에 따라 부동한 차이를 보였는데 '현관가까이'를 선호하는 학생은 동시에 '욕실가까이'를 선호하였고 '내 방'에 샤워시설을 설치할 것에 대해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발코니'의 설치에 대해서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안방가까이'를 선호하는 학생은 '내 방'에 '발코니'와 '샤워시설'을 두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섯째, '욕실'에 대해서는 주거공간에서 가장 작은 면적을 차지함에도 보편적으로 좁다고 느끼지 않았으며, '욕실'내 욕조 시설에 대해서 비교적 선호하는 편이다. 때문에 공용욕실의 확장 및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은 실제 욕구와 어긋날 수 있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침실 이외에 '기타용도'의 방에 대해서는 '서재/공부방'에 대한 선호보다 '영화/음악감상실', '게임/놀이방', '드레스룸'에 대한 선호가 높았는데 그 중 '드레스룸'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이는 청소년의 학습행위는 '내 방'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며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외모에 대한 중시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주거공간 계획 시 '기타용도'로 사용될 방을 미리 예산하여 통풍과 방음 등에 대하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문조사의 결과로 실제적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녀공간, 욕실, 거실, 기타 용도의 방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의 주생활양식과 주거선호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주거공간에서 청소년의 유익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단위세대 공간계획에서 반영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청소년으로 그들의 주생활양식과 주거만족도, 주거선호를 분석하였다. 청소년은 대부분이 중·고등학생으로 학습과 생활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주거공간에 대한 선호는 다양한 변인을 보였다. 이는 주거공간을 다양하게 계획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해주며, 실제로 본 연구의 5개 사례에서 '37가지'의 평면유형이 제시된 것처럼,

각 설계회사에서는 다양한 주택평면유형을 계획한다. 모든 유형의 주거공간은 거주자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주거공간은 노인, 어린이 주부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생활도 편리하게 해 주어야 한다. 실제로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사춘기에 들어서고 그로부터 가정을 떠나 독립하기까지의 청소년기는 상당히 긴 시간이다. '집'이라는 '제1의 공간'은 청소년의 성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공간이며 주거공간이 청소년들에게 합리하게 계획되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청소년의 주생활양식과 주거공간선호를 조사, 연구함으로써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단위세대 주거공간계획에서 반영할 수 있는 공간적인 요소에만 한하였지만 청소년의 주거욕구는 주거시설과 실내장식 등 요소에서도 반영될 수 있다. 추후 더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청소년의 주거선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길 지향한다.

참고문헌

1. 윤정근, 주생활변화에 대응한 아파트 단위평면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1999
2. 김정희, 청소년의 생활양식, 주거만족도, 주거가치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2001
3. 김진영, 중학생의 주거환경과 인성특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원광대 석사논문, 2001
4. 민경희, 청소년의 주거환경과 인성 및 가족과의 공유시간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1998
5. 박미영, 청소년의 주거가치와 주거선호에 대한 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2006
6. 박세영, 청소년의 침실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97
7. 박현아,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집합주택 거주자의 거주적응 및 주요구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1
8. 백영순, 가족생활 주기에 변화에 따른 가변형 주택 계획, 홍익대 석사논문, 2006
9. 신철성, 청소년의 미래주거선호에 영향을 주는 변인연구, 경남대 석사논문, 2002
10. 양형모, 청소년의 주거공간 사용실태와 주거의식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1999
11. 오은미, 청소년의 주거만족도와 여가환경 이용, 충북대 석사논문, 1999
12. 이길호, 도시 청소년의 주거내 개인공간 구성선호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2002
13. 정미영, 도시 청소년의 주거가치와 주거만족도, 전남대 석사논문, 2000
14. 황경희, 청소년의 주거가치와 주거선호에 관한 연구, 울산대 석사논문, 2000
15. 김미희 외, 도시 청소년의 주거가치, 생활과학연구 제12집, 2002
16. 김순경 외, 청소년의 주거의식과 가정환경 변인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논문보고집 제8집, 1986
17. 정영숙 외, 청소년과 생활환경, 대한가정학회, 1998
18. 신예지 외, 생활권 개념에서 주거단지 계획요소 패턴변화, 한국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2008
19. 오은미 외, 청소년의 주거만족도, 생활과학연구논총 제3호, 2000, p.95
20. 유성희 외, 개인공간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청소년의 주거의식,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983.4
21. 황경희 외, 청소년의 주거가치 및 주거선호 경향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논문집 제2권 1호, 2000
22. 대전아파트단지 현상설계 제안서, 대한주택공사, 2007
23. 다음 위키백과,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122792>

<접수 : 2009. 2. 26>